

우리도 테바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15-25)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형제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들은 단지 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실제로 자기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또 베뢰아에 까지 위협이 이어졌을 때에도, 믿음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을 보호하고 피신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 바울을 바다까지 인도했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뒤에 남겨 둔 채 홀로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단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끝까지 돕고 함께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했고,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문화와 철학, 지성과 예술이 모여 있던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테네는 부럽고 찬란하며 고상한 도시였지만, 바울은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분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본 영적 애통함에 가깝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철학을 즐기고, 세련된 사고와 문화적 자부심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세울 만큼 종교적 관심은 있었으나, 참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우

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의 내면에 깊은 공허함이 있음을 보았고, 그 공허함은 인간의 철학이나 쾌락이나 이성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 이유도 결국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비어 있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 역시 지식과 열심, 자기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큰 그림에서 보이는 바울의 존재와 바울의 삶과 태도입니다. 바울의 존재와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와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를 가리키는 말이 모두 '테바'입니다. 이 테바의 중요한 특징은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나 돛이나 엔진이 없어 스스로 방향과 속도와 진로를 정할 수 없으며, 오직 외부의 인도에 전적으로 맡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시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자신을 내어맡기는 것이 바로 테바의 인생입니다. 동시에 테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아의 테바는 홍수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세의 테바는 한 아이를 살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자기 안전이나 자기 성취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며,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실력, 내 계획, 내 경험, 내 재정, 내 판단을 동력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아테네처럼 공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점점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좌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적 공허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테네처럼 눈부신 지식과 문화와 성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안타까움과 복음의 책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운전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속도를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며, 비록 풍랑과 위협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맡겨진 테바의 인생은 결코 헛되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나 하나의 안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종교적 위로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테바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며, 공허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